



점점 강하여 가는 집

사무엘하 3:1

문강원 담임목사

사무엘하 3장 1절은 두 가문의 운명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처음 사울은 위풍당당한 초대 왕이었지만, 다윗은 어린 목동으로 사울의 갑옷조차 맞지 않을 만큼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가정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묻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쇠퇴하는 집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강해지는 집인가? 다윗의 가문이 강해질 수 있었던 세 가지 비결을 통해 믿음의 명문가로 서야 합니다.

첫째, 겸손의 집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체면을 잊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을 때 즉시 통회하며 회개했습니다. 겸손은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태도입니다. 반대로 사울은 교만으로 제사장들을 죽이고, 영광을 독차지하려 했으며,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까지 침범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은혜의 길입니다.

둘째, 온유의 집입니다.

겸손이 자기와의 싸움이라면 온유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해치지 않았고,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앉히며 그의 재산을 돌려주었습니다. 원수였던 시므이도 살려두었고, 적군에게 버려진 애굽소년에게 음식과 물을 주었습니다. 온유는 미움 속에서도 선을 보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강박하여 주변 사람들을 죽이고 결국 홀로 몰락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온유함에서 나옵니다.

셋째, 믿음의 집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자신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결과는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믿음은 상황이 쉬워 보여도, 불가능해 보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으나, 교만으로 믿음을 잃고 결국 성령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자 무당을 찾아가는 비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성령을 잃으면 잡신을 좇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 믿음을 통해 강하여 가는 가정

본문의 “점점”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까? 약해진다면 사울의 교만과 불신앙이 있는 것이고, 강해진다면 다윗의 겸손과 온유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울처럼 몰락하는 집이 아니라, 다윗처럼 후대까지 강성해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점점 강하여 가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5년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

신앙고백 다함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찬송가 559장 (통 305) 다함께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대표기도 담당자

성경말씀 사무엘하 3:1 인도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설 교 다함께

합심기도 다함께

주기도문 다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